

협시보살 · 천사 배치 거의 비슷



◇ 고려불화 '아미타팔대보살도'

불화와 성화비교 33장면 ②

고려불화와 바티칸 채단화

구도 · 두광처리도 일치

고려불화의 '아미타팔대보살도'(그림 왼쪽 · 美 샌프란시스코 동양미술관 소장)와 지오토가 그린 '그리스도와 천사들'(바티칸 미술관 소장).
아미타여래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좌우에 협시보살들과 천사들이 에워싸고 있다. 주인공을 돋보이게 크게 그렸으며 손을 들고 있는 모습, 주위 협시보살들과 천사들의 구도, 각 인물들의 두광(頭光) 등이 흡사하다. 고려불화는 14세기 중반, 지오토그림은 1320년으로 제작시기도 비슷하다.
학림 <예천 법화암 주지>



◇ 지오토작 그리스도와 천사들(부분)

“무소유의 삶 배우고 싶어요”

김보성 무보수 출연

'성철 큰스님은 우리시대를 영도했던 선각자입니다. 그분의 삶을 조명하는 영화에 출연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자체만으로 배우이기에 앞서 불자로서 대단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철스님의 일대기를 영화화한 작품 '성철'(감독 박철수)에 노개런티로 '보시출연'하는 불자배우 김보성(30)씨.

'성철'에서 그가 맡은 역은 성철스님의 젊은 시절 친구였던 '무명'. 영화에서는 내면적인 수행에 치열했던 성철스님과는 달리 외부세계의 고난과 어려움을 두 어깨에 고스란히 짊어



지러 했던 인물로 그려진다. 일제시대에는 독립운동가, 해방 후에는 인민군 장교로 활약했으나 결국 성철스님을 찾아와 불교에 귀의하며 생을 마치는 독특한 캐릭터이다. 김보성씨는 "성철스님의 생활태도에서 볼수있듯 지금의 물질만능시대에는 곧 막을 내리고 영혼의 시대가 올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도 생각하며 살고 싶습니다"며 소박한 바람을 밝힌다. <연>

“정말 스님된 기분”

이해는 비구니역 식발



영화 '성철'에서 스님의 유일한 혈육 불평스님을 모델로 한 해달스님 역을 맡은 영화배우 이해은씨(26)가 18일 부산 내소사 지장암에서 삭발식을 촬영했다.

이날 이해는 "해달스님은 스스로 구도자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삭발하면서도 미소짓는 인물이에요. 그분의 마음이 우러나는 연기를 잘 해냈는지는 모르지만 운주라는 속가의 이름을 버리고 삭발을 통해 해달이라는 법명을 얻는 순간 원시 모를 행복감을 느꼈어요"라며 진지한 자세를 보였다.

영화 「성철」 이미지

불교TV·불교방송 설날특집 불심다지는 즐거운 설연휴

프로그램 제목	시간	내용	프로그램 제목	시간	내용
좋은날 원단아침 1·2부	27~29일 07:15	설 전날의 재래시장 풍경, 앞뜰 차례상 차리는 법, 설날 이벤트, 민속놀이, 한복입는 법, 외국인 노동자의 설 등 연휴표정을 담아본다.	특집 영화음악실	27~29일 22:05	'인터넷으로 본 '98 영화음악'을 준비해 영화음악평론가 삼우진씨와 함께 영화소식을 찾아 인터넷 향연을 떠난다.
고향의 노래, 희망의 선율	27~29일 09:05	우리나라의 가곡과 전통민요를 매개로 고향의 정취를 그린다. 이수인씨의 고향의 노래를 비롯 김복중타령 미사 마이스키의 첼로연주 감상.	특집 생활상담실	29일 11:10	취업전문가 김봉주씨와 함께 자격증 시험의 종류와 시기 준비방법과 진솔본야 소개
함께 알아봅시다	27~29일 10:05	불교의 경제관을 통해 IMF 극복의 지혜를 배운다. 또 불교의 설종수도 알아본다.	특선영화 '열반의 경'	27일 10:30	선재동자의 구도 역정을 연상케 하는 작품. 세계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진 소년 린이 라오스에서 만난 스님과 마법사 일리의 영향을 받으며 자신의 실체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그렸다.
재미있는 설날이야기	27~28일 11:10	민속학자 장주근교수(前 경희대)와 함께 설 풍속의 의미와 놀이이야기 등을 들어본다.	성찰순의 판소리	28일 09:10	판소리 명창 성찰순씨의 판소리 한마당
김홍국의 음악여행 1·2부	27~29일 12:10	명절에 어울리는 우리 문화 연구소(박 차 놀이)를 전화로 연결해 신창곡도 듣는 시간	특집 마당극 서울 뽕파	29일 10:10	성철가 일부를 마당극 형식으로 재구성한 작품. 재물욕이 강하고 방탕한 뽕파(행패)의 모습을 통해 배금주의 사상이 만연된 오늘 우리의 사회를 고발한다.
한국토를 꿈꾸며	27~29일 17:10	살과 꽃가에 얽힌 이야기, 설 전후의 불교계 행사를 알아보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긴다.	특집 다류 서커스 외길인생	29일 11:20	요즘도 대구 등지에서 순회공연하는 병춘서커스단 박재현 단장의 30년 외길 서커스 백일기를 잔잔하게 그린다.
다시듣고 싶은 예 청가요 60	27~29일 20:05	'다시듣고 싶은 노래' '배후노래방'의 최다 신청곡 예청곡 60곡을 선정 들려주고 고향 노래 베스트도 선정한다.			

신행수기 당선작

(대상)

자등명 법등명 ③ <국>

내

가 살고 있는 신행동은 그 당시 케 이블 TV 난시청지역이어서 화면상 태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미용실을 찾은 손님들에게 불교TV를 보라고 소개할 수는 없었지만 손님 머리를 손질하면서 은근히 불교 이야기를 꺼냈다. 평소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수 있게 된 연유와 불교와의 인연 이야기, 부처님의 연기법 등을 말하면서 잠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안방에서 불교TV를 시청하며 기도 하고 수행하면 부처님의 가피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곤 했다.

손님들이 정법을 배워 실천할 수 있게 <법구 경>을 복사하여 나누어주고 맑고향기로운 모음에서 보내주는 책도 주면서 봉사활동에 동참하도록 권했다.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친절하게 보시함으로써 영영을 계속하다 보니 미용실 운영이 원만하게 돌아갔고, 건강도 좋아졌다. 불교공부를 시작하고부터는 항상 상대방을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감사해 했다.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작은 성의지만 좋은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렇게 행복한 나날도 잠시, 또다른 시련이 닥쳐왔다. 불교공부를 하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긴 했지만 팔이 뒷바라지 하라, 하루종일 서서 손님들 머리 손질 해주라 힘겨운 날들의 연속이었던 건지, 결국 지난해 1월 5일 '미용실에서 TV를 향해 안면이 마비'된 채 쓰러지고 말았다.

다. 무려 5시간 동안이었다. 그 와중에서도 나는 관세음보살을 염했다. 그리고는 살려달라며 움직일 없는 몸부림을 쳤고, 소리없는 아우성을 쳤다. 뇌졸중의 시초였다. 의식을 회복하고 보니 햇바닥은 딱딱하고 머리는 깨어질듯 아렸다. 왼쪽 몸은 그때까지도 여전히 마비가 돼 있었다.

'아! 살았구나. 부처님 고맙습니다.' 그날 남편과 아이들은 미용실 안을 들여다보고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내가 TV를 보고 있으니 생각하고 남편은 택시운행을, 아이들은 독서실에 갔다. 한식구 같이 10년 동안을 살아온 애견 방울이가 의식을 겨우 회복한 나를 2층 집으로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를 일이었다. 딱딱했던 햇바닥이 차츰 부드러워 지고, 움직이지 않던 몸과 의식이 회복되면서 내 몸이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이 죽음의 체험과 같이 느껴졌다. 생이란 풀 끝의 이슬이요, 바람 앞의 등불이요, 그림자, 흑두라시 물거품이며 번개같이 잠깐일 뿐이었던가. 죽음을 낚는 일로만 생각

했는데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내게 생겨난 것이었다.

그후 동국대 한방병원에서 한약을 복용하고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몸이 차츰 회복되자 모든 것이 새로웠다. 다시 태어난듯 했다. 숨을 들이 마셨다 못 내 쉬면 그만인데 부처님 가피력 아니고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나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 졌다. 열반에 드신 부처님이 2천5백년이 훨씬 넘은 지금에도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살아 계신다고 믿었다.

하루도 실재없이 미용실을 찾는 손님들에게 나는 내가 겪었던 일들과 부처님의 가피력을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다.

"재량수상 제법무아 일체개고의 모든 현상은 상이다. 집착을 떨치면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며 내 지식도 내 재산도 내 것이 아닌 것이 된다. 내가 밭에서 쓰는 돈이지만 재물의 욕심에서 벗어나야 만이 우리 서로 돕게 되고 육신 상대방에 감사하며 하심하는 마음으로 일망심을 지워버리게 될 것이다. 숨을 들여 쉬었다가 못 내쉬면 죽음인데 숨 쉬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노력해 탐착의 번뇌로부터 벗어나 마음의 문이 열린다"고.

그리고는 불법에 귀의하라며 오계수지를 권유한다. 앉아서 받고 서서 파하더라도 일단 부처님 법을 알게되면 따뜻하게 세상 살아가는 참 의미를 깨우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 오계를 실천하면 생

활이 즐거워지고 자신이 변화되어 가정이 화목해질 것이라고 역설한다.

올해 둘째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면 꼭 일요일 수계법회에 온 가족이 참여하려고 한다. 그리고 온 가족이 불교계의 후원자가 될 것이다. 숨이 붙어 있는 순간까지 부처님 말씀 포교하겠다는 발원으로 조계종 포교계 시험에 응시했다. 조계사신도도 등록도 했다. 여러가지 불교입문서를 구입해 읽으면서 신행의 길을 찾은 나는 청소년 포교의 시급함을 알게 되었고, 요즘은 청소년 포교를 위한 갖가지 방법을 찾고 있다.

얼마 전에는 고3 아들과 대학 1년생인 딸을 데리고 도선사에서 3천배 기도를 드렸다. 온 몸을 땀으로 적시면서 절을 하는 동안 정신에 일어나는 짜릿한 전율과 환희심은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었다.

이처럼 신행의 기쁨은 크다. 미용실 내의 글을 통해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용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우리가 함께 불퇴전의 정신으로 불발 구원에 앞장섰으면 한다.

이태순 (서울시 양천구 신월6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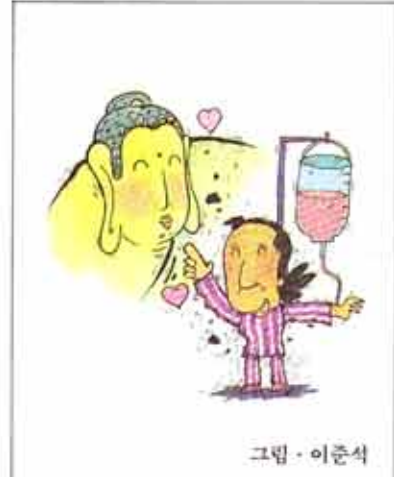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신행의 기쁨은 크다”

뇌졸중 극복한 후 이 생명 다해 포교 발원

활이 즐거워지고 자신이 변화되어 가정이 화목해질 것이라고 역설한다. 올해 둘째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면 꼭 일요일 수계법회에 온 가족이 참여하려고 한다. 그리고 온 가족이 불교계의 후원자가 될 것이다. 숨이 붙어 있는 순간까지 부처님 말씀 포교하겠다는 발원으로 조계종 포교계 시험에 응시했다. 조계사신도도 등록도 했다. 여러가지 불교입문서를 구입해 읽으면서 신행의 길을 찾은 나는 청소년 포교의 시급함을 알게 되었고, 요즘은 청소년 포교를 위한 갖가지 방법을 찾고 있다. 얼마 전에는 고3 아들과 대학 1년생인 딸을 데리고 도선사에서 3천배 기도를 드렸다. 온 몸을 땀으로 적시면서 절을 하는 동안 정신에 일어나는 짜릿한 전율과 환희심은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었다. 이처럼 신행의 기쁨은 크다. 미용실 내의 글을 통해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용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우리가 함께 불퇴전의 정신으로 불발 구원에 앞장섰으면 한다.

신토불이 무공해 오염되지 않은 피부! 신선한 自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각종 유해 대기속에서 지친피부를 바라보는 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선한 자연속에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 바쁜 일정속에서도 만족하고 싶은 자연의 매력!

이제 세안·샤워하실 때 만큼은 항생제를 쓰지 않는 천연 무공해 항균면역피부미용비누를 사용하세요.



●오보크린은 알부민프로테인과 레시틴등의 생리활성물질 (호서대학교와 C.T.F. 연구개발팀의 공동연구 개발물)을 기본원료로 하고, 한국인의 체질에 적합한 일곱가지 한방재로 추출물들을 첨가한 천연소재의 비항생제성 피부 친화적 항균면역피부미용비누입니다.
●오보크린은 피부에 감염되는 병원균들에 대해 직접·간접적인 생리작용으로 항균효과를 발휘하여 주부습진, 비듬, 무좀등을 예방하고, 피부의 자연면역기능을 활성화 시켜줄 뿐만 아니라, 공해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을 피부로부터 배출시켜 항상 싱싱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첨단 생명공학적인 건강미용 비누입니다.

- 한방재추출물 (오미자, 구기자, 감초, 숙지황, 천궁,계피등)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토불이 비누
- 피부에 미백효과가 있습니다
- 99% 천연소재 사용
- 공해매연, 산성비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배출 능력이 우수합니다.
- 주부습진, 여드름, 가려움증(비듬, 무좀등) 예방에도 좋습니다.
- 항균·항진균효과(antibacterial & fungal effect)가 있어 피부에 자연면역 기능을 증진시키며, 장기간 사용시에도 병원균들이 내성을 갖지 않습니다

추천의글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기 영
'오보크린'은 공해로 인해 오염된 피부를 깨끗이 씻어내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뿐만 아니라, 우수한 항균력과 면역기능까지 부여한 첨단생명공학적인 고기능성 건강미용비누라고 생각합니다.
카톨릭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김 영 준
대기 및 실내에 산재된 각종 유해 중금속입자 및 오염물질들을 신속하게 제거해 주는 '오보크린' 건강미용비누는 이들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도시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강원대학교 축산기공학과 교수 이학박사 최 면
세면비누는 미용필수품이지만 '오보크린'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균성물질과 피부노화방지물질 등을 천연소재로부터 추출하여 첨가한 '건강기능성비누'는 차세대 아이디어 상품이다.
신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원 석 희
'오보크린'은 피부에 유익한 생리활성물질에 한방재추출물을 첨가하여 만들어진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건강미용비누로서, 어느 외국제품과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첨단기술력의 제품이다.

(주)씨·티·에프 호서대학교 호서신기술센터 내

